

# 韓國 衣俗信의 研究

## — 願子, 出產 育兒 衣俗信을 中心으로 —

金 鎮 秋

(漢陽大學校 衣類學科)

이 논문은 한국인의 願子 出產, 育兒 衣俗信을 수집하여 그 의미를 분석한 것이다.

俗信은 의식적·무의식적으로 우리 생활의 기저에 자리잡고 있으며 지금도 우리 생활에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이 俗信들은 우리의 가치관이나 사상, 행복관은 물론 심리적인 면을 찾아낼 수 있는 귀중한 문화유산이며 문화요소인 것이다. 그 속에는 한국적인 것이 들어 있다. 우리는 이런 귀중한 우리 것을 보존하고 수집할 필요가 있다.

근래 학자들은 이에 대한 중요성을 자각하고 俗信을 수집하고 보존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이 논문의 자료는 책, 신문, 잡지, 라디오, TV와 개인 또는 집단 면담 등을 통하여 지난 20여년 동안 수집한 衣俗信 중에서 본 논문의 主題와 관련있는 것들을 추출한 것이다.

韓國人의 願子 出產, 育兒 衣俗信에 관한 본 연구의 결론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願子 衣俗信에는 韓國人의 뿌리깊은 男兒 선호, 男兒 존중, 男子 중심 사상, 多子多男, 子孫繁昌 등 子福의 幸福觀과 價値觀이 나타났다.

이와 같은 男兒 존중, 男子 中心의 폐쇄된 사회에서 여자가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있고 사람으로 대접받으려면 男兒를 生産하여야 했으므로 그들의 의식적·무의식적 심리적 불안과 공포심은 한국의 부녀자들로 하여금 願子 衣俗信을 찾아내고 만들어 내고 그것을 실행하며 많은 심리적 불안과 공포심에서 도피하고 안정감을 찾으려고 했던 것으로 보인다.

衣俗信에는 “아들을 얻으려면 이리이러한 것을 하라.”, “이리이러한 것을 하면 아들을 낳는다.”고 하는 적극적인 方法이 동원되었음을 발견되었다.

韓國의 願子 衣俗信의 가장 특징적인 面은 아들을 원하는 부인이 아들을 낳았거나 또는 잘 낳는 부인의 옷이나 속곳, 속바지, 月經帶 등을 배에 두르거나 또는 입는 것이며, 아들을 낳고 싶은 부인이 특별한 재료로 만든 속곳을 입는 것이다. 그러므로 韓國의 願子 衣俗信에 사용되는 속곳은 그냥 속곳이 아니고 거기에는 특별한 의미와 가치가 부여된 특별한 옷인 것이다. 즉 그것은 아들을 생산하도록 만들어 주는 힘을 가진 속곳인 것이다.

韓國인의 願子 衣俗信에서 다른 사람의 옷을 사용하거나 또는 그것을 변조하여 사용하는 것이 발견된다. 이는 근본적으로 남의 옷을 입는 것을 싫어하고 기피하는 것과는 다른 습속이다. 한국인은 옷을 그 옷 입자와 동일시 하기 때문인데 바로 옷과 그 옷 입자를 同一視하는 이 의복에 대한 한국인의 思想이 願子 衣俗信과 일관되게 나타났다.

育兒 衣俗信에서는 갓난 아기에게는 새옷과 예쁜 옷, 몸에 맞는 옷을 기피하는 民俗이 많이 나타났다. 이것은 새로 난 아기가 귀신(병귀, 액귀)에게 해를 입을까봐 두려워하는 공포심과 불안감에서 탈피하고자 하여 유아를 귀신의 관심에서 숨기고자 한 일종의 은닉방법이었다. 아울러 赤色이불, 赤色주머니, 色絲帶, 陽色을 사용한 아기용품도 귀신을 물리치고 아기를 위협에서 보호하고자 한 것이다. 한국인의 전통적 질병관이나 횡액관은 모두 귀신의 발동과 해코지로 일어난다고 보았기 때문에 育兒 衣俗信에는 귀신의 관심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아기를 숨기고 귀신이 못 알아보게 하기 위한 방법과 귀신의 침입이나 방해를 막기 위한 방법을 사용한 것이 발견되었다.

## **A Study on Korean People's Folklore Faiths in Apparels**

**— Focused on the Baby-Delivery and Nursing Clothes —**

**Jin-Koo Kim**

(Dept. of Clothing & Textiles, Hanyang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llect Korean people's folklore apparel faiths involving their wishes for son, their baby-delivery and nursing.

The folklore faiths still are kept in our minds deep inside, influencing our life much.

These faiths must be invaluable cultural remains or elements which can suggest the ground for our value system, thoughts, views of happiness and even our psychological conditions. In short, they are the traces of our people's living. In this regard, it is necessary to preserve them.

Recently, many scholars have been re-awakened of the importance of the folklore faiths, and thereby endeavor to collect or preserve them, although we have a long way to go for any systematic studies of them.

For this study, various literature or sources such as books, newspapers, radio and TV scripts were extensively reviewed, while individual and group interviews were performed. The literature or sources had been collected for the last 20 years by the researcher.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The folklore apparel faith involving "wish for son" has been closely related with deep-rooted preference or respect of son, son-centered thought, "the more sons, the better" thought, prosperity of offsprings, or wish for son's success.

In the closed "son-first" or "respectful son" society, women should give birth to a son if they want to exist in the society or at least be treated as human beings. Their conscious or subconscious psychological fear and anxiety drove them to create, find and practice the folklore apparel faiths. Thus, they seem to have attempted to escape from their psychological fear and anxiety and be relieved in the faith.

The folklore apparel faiths involving the wish for son are such positive ones as "do this and that if you want to have a son" or "if you do this, you shall have a son".

For example, those women who wanted to give birth to a son used to try the underwear or girdle worn by a woman who had given birth to a son, or they tried an underwear made of a special fabric. In other words, the girdle or underwear tried by the old Korean women was not just simple underwear but a special one for a son. They believed or wanted to believe that the underwear would bring them a son.

Many data show that our old women worn other women's girdles or modified them slightly to suit their body sizes. These findings oppose the tradition that other people's clothes should not be worn or at least avoided. Korean people have identified the apparels with their wearers, which is consistent with the folklore apparel faith involving "wish for son".

On the other hand, there were many folklore faiths that infants should not be dressed in new or pretty clothes. Such faiths seem to have been originated from their fear that their babies would be harmed by ill spirits (disease or disaster spirits). Namely, they wanted to hide their babies from the ill spirits. For example, they believed that red quilt and bag, colored belt or bright color baby toy would protect their babies from the ill spirits or danger. Our old people thought that diseases or misfortunes would be caused by the spirits' invasion or play. All in all, it is disclosed through this study that our ancestors' folklore apparel faith involving child-care were related with their wishes to divert ill-spirit's attention from their babies and thereby protect the babies from ill-spirits' invasion or intervention.